



휴대폰 점쟁이 - 모바일로 간편하게 운세 보기

벌써 2003년 12월이다. 시간의 흐름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가속이 붙는다고 하더니,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1년이 더욱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한 해에 대해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되는가. 이제 한 달 채 되지 않는 동안에 1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1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기획해 봐야 하는 때가 됐다.

연말연시에 한두 번쯤 심심풀이로 해 보는 것 가운데 하나로 토정비결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미신이다, 구닥다리 통계이다, 그냥 심심풀이일 뿐이다 등등 이야기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원래 이러한 점의 의미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조언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

민지는 않더라도 가끔은 재미로, 가끔은 조언삼아 이러한 점술 관련 콘텐츠를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번 모바일 콘텐츠 리뷰 주제로 선정해 보았다. 카드를 이용하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얼굴을 이용한 사주 풀이는 물론 로또까지 짚어주는 광범위한 콘텐츠를 소개할까 한다. 자, 모바일 부채도사를 만나러 떠나 보자.

글 / 임영모 테크라이터(duri022@freechal.com)

대표적인 카드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서양에서는 타로 카드를 들 수 있고 동양에서는 화투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어릴 적에 할머니와 함께 자랐었는데, 할머니 소일거리 중 하나가 바로 화투로 패를 떼어서 오늘은 손님이 오네, 오늘은 국수를 먹네 등을 말씀하시던 생각이 난다. 또 서양 영화를 보면 점성술사들이나 예언자들이 상징적인 인물이 그려진 타로 카드라는 것을 이용하여 점을 보는 것을 종종 본다.

모바일용 프로그램으로도 이러한 카드 점 관련 콘텐츠들이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란다.

이집트 혹은 인도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는 타로 카드는 서양에 전파된 후 게임적인 성격과 함께 점을 보는 주술적인 의미까지 띄게 되면서 배척도 받게 됐지만,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확대돼 점술 분야의 대명사가 되었다.

타로카드는 0. The fool(광대)부터 시작해 21. The world(세계)까지의 22장이 메이저 카드가 되며, 그 외에도 수십 장의 마이너 카드로 이뤄진다.

타로카드의 주된 역할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모든 그림에 대해 '정' 해석과 '역' 해석이 존재한다. 가령 0번 카드 The fool(광대) 카드의 경우에는 좋은 쪽의 해석으로 '안정적, 차분, 침착, 완만, 낙천적, 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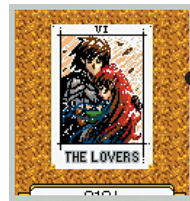
[매직 타로 카드]의 인트로 화면.



메인 메뉴로 점보기와 카드 구경하기로 간단한 메뉴 구성을 띤다.



점보기 메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세분화된다.



연인(The Lovers) 카드 이미지.



악마(The Devil) 카드 이미지.



마법사(The Magician) 카드 이미지.

의 의미를 갖지만, 반대로 '주의력 산만, 불규칙, 침착하지 않음, 실증 잘냄, 산산히 부서짐'의 의미를 갖는다.

엔플레이 '매직 타로 카드'

이러한 타로카드를 모바일로 옮겨 놓은 제품들이 여럿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를 들라고 하면 '엔플레이'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매직 타로 카드'라 할 수 있다.

메뉴는 크게 점보기와 카드 구경하기로 나누어지며, 점보기에는 '나의 사랑운', '나의 금전운', '그의 생각 엿보기', '켈틱크로스'와 같이 크게 4가지 메뉴로 구성된다. 점보기를 들어가면 해당 사항에 대해 답변으로 나온 카드 이미지와 함께, 질문에 대한 카드의 대답과 카드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나의 금전운이 어떨지 궁금해서 한 번 테스트를 해 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금전운 메뉴 안에서도 세부 메뉴로 '현재 나의 금전운', '도움이 되는 것(사람)', '가까운 미래'로 각각의 카드가 뽑혀 나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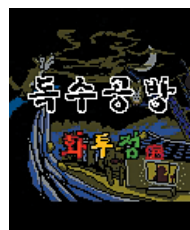
'현재 나의 금전운'으로 'Death(죽음)' 카드가 나와 '금전운이 약해 괴롭겠습니다'라고 나오고, 카드의 의미는 '대체로 어두운 카드로 보이지만, 한 상황이 끝나고 크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병이나 나쁜 일, 시기를 놓침, 후회를 뜻하며 좋은 변화라도 급격한 변화에는 고통이 따름을 의미한다'라고 나온다.

'도움이 되는 것(사람)'으로는 The Chariot(전차) 카드가 나왔으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라고 나온다. 카드의 의미로는 '굳은 결심, 발랄한 정열을 상징한다. 열정적인 노력으로 위대한 목표를 이룬다는 뜻이며, 오해와 복수를 뜻하기도 한다. 의미 있는 성공을 위해 목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온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the devil(악마)' 카드로 '꼭 필요할 때 돈이 부족합니다'라고 나왔으며, 카드의 의미는 '집착과 욕심으로 자기 자신을 가둔 인간을 상징한다. 성욕, 타락, 황폐함, 병들거나 빛을 진 무기력한 상황을 의미하며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인 존재를 뜻한다'고 나온다.

정식 타로 카드를 응용한 모바일 버전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듯. 정식 타로의 경우 배열법도 다르고, 점술 항목도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모바일에 넣어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카드를 펼쳐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싶다.

이와 비슷한 카드 점으로 엔플레이 사에서는 '독수공방화투점', '분신사마화투점', '러시안 집시카드', '바빌론의 별점' 등 다양한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독수공방화투점 인트로 페이지.



종류별 점괘를 선택한다.



재미로 보는 점이라 멘트도 가벼운 게 특징이다.



엔플레이사의 또다른 화투점 '분신사마화투점'의 한 장면.



복합 운세 서비스 콘텐츠 '천하(天下)운세'

앞서 소개한 카드 점이 랜덤한 카드의 조합에 의해 주어지는 점괘였다면, 디지털웹에서 제공하는 '천하운세' 서비스는 본격적인 동양철학 운세 코너라 할 수 있다.

크게 운세 종합, 성생활 속궁합, 성명학, 아이폰 운세, 토정비결, 궁합 종합, 사주 종합, 사용자 관리 메뉴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세부 메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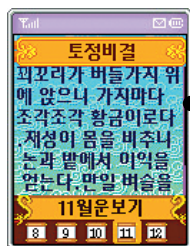
운세종합 편에서는 '오늘의 운세/특정일 운세/월 운세/년 운세' 등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성생활 속궁합 메뉴에는 '성생활 운세, 섹스 공략법, 섹스 패턴보기, 애인과의 섹스궁합 보기' 등 다양한 성인 전용 콘텐츠들이 들어 있으며, 성명학에는 '감명(한자풀이), 감명(한글풀이), 작명(이름짓기), 나의 복도장'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징적이면서 재미있는 콘텐츠로는 '아이폰운세'를 들 수 있는데, 핸드폰의 전화번호를 통해 핸드폰 주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극오행이라 불리는 이론을 접목했다는 이 성격풀이는 모든 숫자가 지니고 있는 별과 그 성격을 풀이해서 그 사람의 진짜 성격, 연애와 일, 가족 등 여러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행동 등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연말연시에 즐겨찾는 토정 이지함 선생님의 '토정비결'도 들어 있으며, 궁합과 사주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어 동양철학 종합선물세트를 구성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선 인터넷 기능을 백분 활용하여 VM 콘텐츠의 용량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부분의 점술 서비스를 한 군데 담았다는 게 이 콘텐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매일 스포츠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시는 독자라면, 이러한 콘텐츠 하나쯤은 모바일 VM 영역에 담아 놓고 다니면서 즐겨볼만 하지 않나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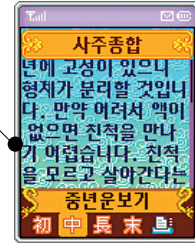
천하운세에서는 여러 사용자를 설정하고 관리 가능하다.



사주종합메뉴는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운세로 나뉘어 각각 제공된다.



토정비결은 월별 운세 형태로 볼 수도 있다.



성인용 콘텐츠로 성생활 속 궁합도 보준다. 궁금하면 이 제 모바일에 물어보자.

카메라 폰의 기능을 심분 활용한 포토점술카페

랜덤한 카드 조합이나 생년월일만으로 점쳐지는 운세에 대해서 다소 고리마분하다거나 구닥다리로 여겨진다면 새로운 기능의 점술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지난 호 모바일 콘텐츠 리뷰에서 '카메라 폰'의 활용 기능을 논한 바 있는데, 이 역시 그러한 디지털 컨버전스 개념의 콘텐츠라 할 수 있다.

'포토점술카페'는 디지털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과 사주 정보 및 짧은 질의를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전송하고 전문가의 운세 상담을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 받게 하는 포토 1:1 운세상담형 서비스다. 전문가가 1:1로 점술 상담을 한다는 것과 사진을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인 개인화된 자료를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서비스들보다 전문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SK텔레콤을 통해 서비스 중인 이 '포토점술카페'는 '일일 운세'의 경우에는 바로 바로 그 결과를 알 수 있고 한 건당 100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포토운세상담'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원하는 상담 질의를 보내면, 신청 후 1~2일 내에 상담가가 직접 상담한 자료가 전송됐다는 SMS 메시지가 오고, 신청자는 서버에 접속해 상담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으며 건당 2,000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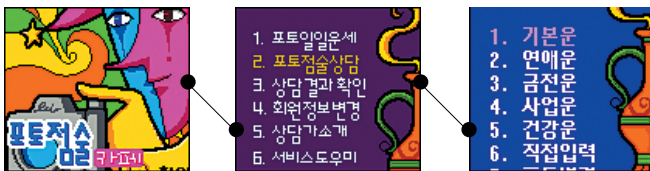
이 서비스는 WAP으로도 제공되고 있으며, 무료 VM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취향에 맞게 골라 쓰면 된다. 다른 점술 콘텐츠보다 전문적인 상담가들이 함께 하는 전문 콘텐츠라 추천할 수 있겠다.



로또 찍기의 자동찍기 화면. 역대 추첨결과를 바탕으로 확률 자료를 보여준다. 복돼지가 알아서 숫자 6개를 다 찍어 주었다. 과연 잘 맞을까? 그건 누구도 모른다.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독특한 번호를 업기적으로 찍어 준다. 나는 최민수 버전 로또. 내 로또는 내가 찍는다. 직접 찍기 메뉴. 번호를 다 찍은 후 저장해 두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통계를 낼 수도 있다.



점술이 사진을 만났다. 포토 점술 카페 초기 화면. 간단한 일일운세를 보거나 전문가의 점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각각의 기본적인 운세를 상담할 수 있고, 별도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이제는 모바일이 로또 번호까지 찍어준다

올해 초 전국을 강타했던 문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로또'라 할 수 있다. 로또를 구매한 구매자들은 800만분의 1이라는, 번개를 세 번 연속으로 맞을 정도의 확률이 바로 자신의 운명인 냥 매주 로또를 구매하고 로또 발표만을 기다리며 살기도 한다.

45개 숫자 중에서 6개를 맞추는 쉬워보이지만 결코 '나와는 거리가 먼' 로또의 숫자를 대신 골라주는 모바일 콘텐츠로 있다. 점술이나 운세와는 별로 상관 없으나, 어차피 로또도 '운'이므로 함께 소개한다.

로또 관련 상품으로 몇몇 상품이 출시돼 있으나, 원래 금융 서비스 업체로 그 기술을 바탕으로 '로또 찍기'라는 콘텐츠를 서비스 중인 '로코모'사의 서비스를 골라봤다.

'로또 찍기'는 자동 찍기, 업기 찍기, 직접 찍기 등의 방식으로 번호를 고를 수 있으며, 내 번호에 대한 당첨 여부 확인 기능과, 자동으로 SMS를 통한 당첨 여부 전송 기능, 실시간 당첨금(금주 1등 누적 금액 및 최근 회차 당첨금액) 보기 기능, 당첨 번호 통계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로또 구매 기능이 없으므로 로또 찍기의 복돼지들이 찍어준 숫자를 들고 로또 판매점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거기서 '자동 선택'으로 표기할 것이라면 로또 찍기의 복돼지들에게 한 번쯤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밀쳐야 본전 아닐까 싶다.

'짱'이 되더라고 책임질 수는 없다. 모든 것이 그렇듯

선택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은 앞 일이 궁금해지기도 한다. 나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직장은 안전한지, 돈은 언제 정도 내 호주머니에 등지 틀려는지, 사실 궁금해하다보면 모든 게 궁금해진다. 그럴 때는 정말이지 가까운 사주카페도 한 번쯤 흘끗 쳐다보게 되고, 길거리에 가판을 펴놓은 점쟁이 아저씨에게 물어보고도 싶어진다. 스포츠 신문의 '오늘의 운세'가 가장 먼저 펼쳐보는 첫 페이지가 되기도 한다.

앞서 소개한 콘텐츠들에 과학적인 통계가 기반이 됐거나 확률이 별도로 들어가 있다고까지는 조심스럽게나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적으로 '없다!'고 치부한다 쳐도 '아니면 말고'로 통하는 '카더라' 국정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넘기면 될 것 같다. 안 믿는다면 안 쓰면 되는 것이니 말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한 점괘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지는 않는다.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아주 상반되는 틀린 점괘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말씀해두고 싶은 건, 이러한 점괘를 '예언'이 아닌 '조언'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아무래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지 않을까?

2003년에 추진했던 모든 일이 본인의 뜻대로 마무리 되길 바라고, 다가오는 2004년에도 항상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